

애플, 플랫폼시장 독점 의혹

공정위, 美·EU 이어 혐의적용 법리검토 나서

美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소장 받아 EU, DSA·DMA 근거로 조사 중

한기정 “플랫폼, 반칙·기만행위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감시할 것”

애플의 플랫폼 시장 독점 의혹을 두고 미국과 EU가 강도 높은 조사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법리 검토를 시작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소장을 받아 한국에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 내용은 앞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룬다.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지난 21일 서면 독점금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애플 단독 운영체제(OS)인 iOS를 이용해 아이폰 작동 체계를 통제하고 일부 앱과 서비스를 합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는 소송을, EU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

제한했다는 혐의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맥을 포함해 아이폰까지 자사만 이용 중인 파일형식이다.

애플은 자사만의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형식에 대해서 호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와 이미지 간 차이가 앞선 사례의 결과로, 디자인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경쟁사 스마트 워치 및 간편결제 연동까지 제한한다.

애플의 천문학적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여기서 근거한다. 애플

의 인앱 결제 수수료 수익은 100조원에 이른다.

EU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의 앞선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미 아마존은 지난달 27일 DSA 관련 첫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EU는 DMA 위반 1호 사례로 애플, 구글, 메타를 선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미국 법무부가 낸 소송과 결이 같다.

EU의 조사는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거두는 총 매출의 10%, 2023년 기준 4000억 달러(550조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이은 조사와 소송 소식이 이어지며 지난 1분기 주가도 11% 급락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플랫폼법 입법 추진 당시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던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인 기기 운영정책은 보안과도 관련있다”며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단적인 몇 가지 사례로 조사하는 게 옳은지도 알 수 없고, 해당 조사로 기업 내 보안이 훼손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소송과 조사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대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강종오 모빌리티사업담당(사진 왼쪽)과 모비릭스 임중수 대표(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모비릭스와 차량용 게임개발

LG유플러스가 차량용 게임 분야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게임 기업 모비릭스와 차량용 게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콘텐츠로 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투리 시간을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이를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차량용 게임 산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짧은 시간에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차량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 초기에는 간단한 터치 위주의 게임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비릭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5000만회 이상의 캐주얼 게임 10여 종을 포함해 200종 이상의 작품을 보유한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이다. 대표 게임인 벅돌깨기 퀘스트는 미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등 국가에서 인기를 끌며 올해 3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게임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모비릭스는 게임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최적화된 게임의 개발 및 공급을 맡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SK C&C

CJ대한통운 택배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공급

SK C&C가 CJ대한통운의 새로운 택배 시스템 로이스 파슬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로이스파슬은 CJ대한통운이 2021년부터 3년간 개발한 하루 최대 2000만 건에 달하는 초거대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택배 시스템이다.

SK C&C는 이번 사업에서 로이스 파슬의 택배코어, 고객센터, 모바일 등 택배 핵심 업무 영역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조성해 대규모 디지털 택배 물량 처리 환경을 제공했다.

오토 스케일링(Auto Scaling)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특수기나 피크타임 때 발생하곤 했던 시스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또 각 업무 영역을 독립된 분산 데이터베이스(DB)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로 설계해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택배 코어 업무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은 장애와 상관없이 상품 추적, 예약과, 문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종찬 SK C&C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그룹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전환을 통해 대규모 택배 물동량 처리 환경을 마련했음은 물론 현장 및 고객에 맞춰 택배 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첫 조직개편 단행

탄소중립팀, 기술총괄 등 신설·통합 조직구조 슬림화·컨트롤타워 강화 이유경 등 여성 임원 약진 두드러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지주사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포스코홀딩스는 4월 3일부로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본원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주사 내 철강팀·수소사업팀과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업무의 주요 기능을 지주사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신설되는 ‘탄소중립팀’이 통합 관리하게 되어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략기획 및 사업추진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기능을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이관하여 ‘이차전지소재사업관리팀’을 신설했으며, 그룹차원의 R&D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기술총괄’을 신설하고 포스코기술투자의 신사업 기획, 벤처 기능도 이관하여 지주사 주도의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강화한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컴플라이



이유경
경영지원 팀장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



한미향
커뮤니케이션 실장

인스 기능 강화를 위해 ESG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사무국’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포스코홀딩스 정기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성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팀장으로는 포스코그룹 역사상 첫 여성 사업회사 대표인 엔투비 이유경 사장이 보임한다. 또 탄소중립팀 탄소중립전략실장은 포스코 여성 공채 1기로, 광양제철소 2제강공정장, 생산기술기획그룹장을 역임한 포스코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는다.

커뮤니케이션팀 홍보담당은 포스코·포스코퓨처엠 홍보그룹장 및 포스코홀딩스 언론담당 상무보를 역임한 그룹내 손꼽히는 홍보 전문가인 포스코 한미향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선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위성통신 기술로 산불 진화 스타링크와 본격 실증 추진

SK텔레콤이 산불 등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회사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링크 코리아와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산림청 대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 불량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SK텔레콤과 SK텔레콤,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 연구팀, 콘텔라, 유알정보기술, 에프엠웍스, 설악이앤씨 등이 참여한다.

/구남영 기자